

서론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의인 야고보,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 지혜의 사람
2.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들”: 흩어져 있음은 시련과 유혹, 혼돈과 투쟁을 내포. 그러나 빛이 되는 자리

I. 시련과 유혹을 넘어 (1:2-18)

1. 어떻게 시련과 맞설 것인가? (2-12)

- 1) 여러 가지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것 기억하라(2a)
- 2) 믿음의 시련일 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하라(2-4)
: 믿음의 시련은 생산적이다.
- 3)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5-8)
- 4) 건전한 자화상 유지하라(9-11)
- 5) 주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12)

2. 어떻게 유혹과 맞설 것인가? (13-18)

- 1) 유혹도 반드시 온다는 것 명심하라(13a)
- 2) 유혹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라(13-14)
: 외부의 환경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유혹의 근원
- 3) 유혹의 파괴력 명심하라(15)
- 4)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16-17)
: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욕심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 5)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18)
: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새 창조의 첫 열매들

II. 참된 경건을 확인하고 견지하는 법 (1:19-25)

1.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19-20)

2.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21)

- 1)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분노에 지배된 때는 마음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지배된 상태이다.
- 2)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달려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마음에 심겨 두신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22-25)

4.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26, 27)

- 1) 참된 경건의 상이 왜곡되어진 상황
 - A. 세속적 성공 여부 아님 (부자, 세상사랑, 출세에 대한 야심과 계획은 경고의 대상)
 - B. 강한 은사 소유 아님 (은사는 언제나 섬김을 뒷받침해야)
 - C. 수많은 교회 활동과 많은 신앙적 지식 아님 (차별과 다툼을 심화시킬 수 있음, 중요한 것은 동기)
- 2) 참된 경건
 - A. "자기 혀를 재갈 먹이는 것" (3장)
 - B.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2장)
 - C.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4장)
 - D.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5장)

결론

1.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해야 한다.
2.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가져라. 듣기를 속히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들여다보고 행하는 사람들 되라.
3.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 혀를 재갈 먹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강림하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한다.

I. 참된 믿음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2:1-13):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1. 상황 예시 및 평가 (2-4)

2.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 (5-11)

- 1) 하나님의 행하심과 대조되는 행위(5-6a)
- 2) 사람들의 자연스런 정서에도 위배(6b-7)
- 3)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법행위(8-11)

3.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굳게 붙잡아야 할 것 (12, 13)

: 자유의 율법을 따라 금홀을 베푸는 자

II. 행위가 동반되는 참된 믿음 (2:14-26)

1. 논의의 핵심 (14a)

"만일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행함이 없다. 이 사람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2.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용성에 대한 야고보의 주장 (14b-20)

- 1)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14b)

야고보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행함을 기준으로 하여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 vs. '행함이 없는 믿음' /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돌아서야 한다.

- 2)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15-17)

말로 금홀 베푸는 것은 자기 과시요 자기 위로에 불과하다. 금홀을 베푸는 것은 이웃의 궁핍을 채워주는데 까지 나아가야한다. 남에게 유익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에 무력하다(18): 과거 운동권의 도전

4)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탄함(19-20):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성도들 중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막연한 유용성은 철저히 깨어져야 한다.

3. 행함이 동반된 참된 믿음에 대한 성경적 증거 (21-26)

1)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20-24)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를 의롭다 하신 사건’과 ‘이삭을 드린 사건’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노년의 그의 모습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졌다. 하나님의 칭의는 예언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2) 라합(25)

3) 결론적 진술(26):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

결론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는 믿음 가진 자. 자유의 율법을 의지하여 차별을 넘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
2.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3.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서론: 혼돈된 공동체적 상황

1. 실망스런 성도, 실망스런 공동체

시련과 유혹에 노출,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태도 상실, 헛된 경건이 참 경건의 자리 대치.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들은 소외되고, 차별이 나타나며, 가난한 자에게 몸예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만 무성.

2. 미성숙한 선생들의 등장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 자기 나름의 방법과 주장 제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판단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미성숙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에는 더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났다.

3.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혼돈에 빠진 공동체를 향해 야고보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I. 지도자와 혀 (3:1-12)

1.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1,2)

- 1) 엄격한 심판: 막중한 책임감과 타인들을 향한 영향력 때문
- 2)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음
⇒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음

2.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영향력 가짐 (3-5)

- 1) 말을 순종케 하는 입에 물린 재갈(3)
- 2)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운전하는 작은 키(4)
- 3)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작은 불(5)

3.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혀 (6-12)

- 1) 혀는 불, 불의의 세계(6): 우리 지체 중에서 지옥 불의 도구로 가장 쉽게 전락되어지는 것

2)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 없음(7-8)

쉬지 아니하는 악(항상 돌발하기 쉬움), 죽이는 독이 가득(사람에게 치명적)

3) 문제의 핵심: 혀의 이중적 현실(9-12)

II.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3:13-18)

1.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이는 자" (13)

1) 지혜와 총명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2) 행위의 표현 방법은 온유함

2. 마귀적인 지혜도 있다 (14-16)

1) when?: 독한 시기와 다툼(selfish ambition)이 마음을 지배할 때

2) 바람직한 행동: 어떤 말과 행동도 해서는 안 됨.

3) why?: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초래될 것

3.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라 (17-18)

1)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

2) 혼돈된 공동체 가운데 참된 지도자상: 위로부터 난 지혜 소유하여 평화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람.

"the seed whose fruit is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NASB)

결론

1. 참된 지도자는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혀를 재갈 먹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참된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행함의 사람이다.

3. 참된 지도자는 질투와 개인적 야심에 지배되어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평화 중에 장차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서론

1.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와 지도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교회를 향해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혔다.
2. 4장에서 사도는 직접적으로 교회 속에 나타난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며,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3. 이 교훈은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한국 교회에게 적절할 뿐만 아니라. 처절한 생존 경쟁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참된 성공의 길을 알려준다.

I. 참된 성공의 길(4:1-10):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1. 싸움과 다툼의 원인 (1-3)

- 1)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난 것(your pleasures that wage war in your members)
- 2) 욕심은 소유와 만족에 대한 방법이 아니다(2a)
- 3) 참된 소유와 만족의 길: “하나님께 구하는 것”(2b) & “잘못된 동기를 제거해야”(3)

2. 정욕에 지배된 삶의 죄악 됨 (4-5)

- 1) 간음하는 여자들: 세상과 벗된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
- 2) 성경의 질투하는 사랑: 간음의 죄악 됨은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에서 더욱 철저히 나타남

3.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인가? (6)

- 1)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 세상과 벗이 됨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
- 2)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 “교만한 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과 벗된 사람들)
- 3)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겸손한 자”

4.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7-10)

- 1)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라(7):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
- 2)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8a):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 3)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8b-9)
- 4)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10):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II.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 (4:11-17)

1.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들 (11-12)

입법자와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웃을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 맡기며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

2. 세속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부당성 (13-17)

1) 책망의 내용

- A. 유한한 인간임을 망각(14)
- B. 바로 지금 선을 행하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다(17).

- 2) 바람직한 대안(15):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If the Lord wills, we shall live and also do this or that) (NASB)

결론

1. 참된 성공의 길은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를 가까이 하며, 자신을 고쳐 그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2.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제들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 되라.
3. 미래의 계획에 빠져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하루 동안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론

1. 지금까지 내용

1장에서 내린 참된 경건의 정의에 비추어, 차별과 행함이 없는 믿음(2장), 허의 부당한 사용(3장), 세상과 벗되는 삶을 책망하고(4장 전반부). 주 앞에 낮추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였다.

2. 5장 내용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할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부한 자들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 사도는 서신을 마치며 참된 경건을 위해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I.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할 세 번째 사람들: 부한 자들 (5:1-6)

부한 자들의 그릇된 헌신은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과 벗이 되도록 부추긴다.

1. 부한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엄중한 요구: “울고 통곡하라” (1)

2. 부한 자들의 잘못 (2-6)

1) 직무 유기(2-3):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재물을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음

2) 쌓여 있는 많은 재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은 체불(4)

3) 임금은 체불하지만 자신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5):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다”

4) 자신들을 책망하는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임(6)

II.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 (5:7-20)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시련과 유혹이 있고, 교회 속에는 실망스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함과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주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1. 길이 참는 공동체 (7-11)

1)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7-8): 두 가지의 기다림

A.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이 땅에서 행한 참된 경건의 삶은 주의 강림 때 보상 받을 것이다.

B. 이른 비와 늦은 비: 참된 경건을 위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기다려야 한다.

2)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9):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원망을 긍휼과 섬김으로 바꾸라

3)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10)

4)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11): 옫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억하라.

2. 정직한 공동체 (12)

1) 거짓과 위선: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파괴시키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한다.

2) 맹세로 포장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은 명백한 죄악

3) 진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라

3. 기도하는 공동체 (13-18)

1) 당사자의 기도(13)

2) 중보기도의 능력(14-16)

3) 기도의 능력에 대한 생생한 예(17-18): 엘리야

회개는 선행되지 않는 회복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4.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공동체 (19-20)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 주는 가장 큰 사랑의 일

결론

1. 부한 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셔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역사에는 끝이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길이다. 시련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정직하며, 기도하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